

고려와 벽란도

우리나라의 영문 이름은 "REPUBLIC OF KOREA"입니다. 줄여서 "KOREA"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KOREA"는 "고려"라는 나라의 이름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고려는 왕건에 의해 918년에 건국된 나라입니다.

고려는 건국 후 지금의 중국 지역인 송을 비롯하여 거란, 여진, 일본 등 외국인의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며 대외무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성강 입구에 있는 벽란도는 국제 무역항으로서 개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고 이 곳에는 송나라,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라비아 상인의 무역선까지 드나들었습니다.

중국 상인들이 가져온 비단, 약재, 서적, 차 등은 고려 귀족들 사이에 인기 상품이었습니다. 이슬람 상인들이 가져온 상아, 수정, 호박과 같은 보석, 후추와 같은 향신료, 수은, 양탄자 등도 인기를 누렸습니다. 고려의 수출품으로는 삼베, 인삼, 종이, 먹 등이 있었는데, 종이와 먹은 당시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슬람 상인들이 벽란도로 들어와 무역을 하게 해달라고 청하며 왕에게 선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현종 15년

'이슬람 상인들이 100명이 벽란도에 들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정종 6년

'아라비아 상인들이 수은, 1)용치, 점성향²⁾, 몰약³⁾, 대소목⁴⁾ 등 각종 특산물을 바쳤다.'

당시 인기가 많았던 고려청자는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사랑받는 한국의 전통 예술품입니다. 특히 푸른 빛깔이나 무늬 등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표현하지 못하는 한국만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 이때 인기가 많았던 고려인삼은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이며, 사람의 모양을 닮아 인삼이라고 합니다. 고려 시대에도 인기가 많았으며 지금까지도 수출품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고려에는 외국인들이 편하게 머물 수 있도록 '벽란정'이라는 숙박업소까지 있을 정도로 외국 상인들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집, 전당포도 있었고 심지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도 열렸다고 합니다. 이슬람 상인들은 '예궁'이라는 모스크를 지어서 기도를 하고 코란을 낭송하기도 했다고도 전해집니다.

1) 용치: 코끼리, 코뿔소 등의 큰 포유동물의 이빨 화석

2) 점성향: 향료의 일종

3) 몰약: 감람나무에서 얻은 한약재

4) 대소목: 식물로 만든 염료